

위협적이지 않았던 벤투호 우승후보의 불안했던 출발

‘황의조 결승골’ 필리핀에 1-0 진땀승...높은 점유율 비해 효율 떨어져



기대했던 낙승과는 거리가 멀었다. 59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리던 벤투호의 시작이 좋지 않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2019 UAE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후반 22분 나온 황의조(김바 오사카)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3위와 116위의 대결, 우승 후보와 아시안컵 데뷔전을 치르는 약팀의 격돌이었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7전 전승(36골 무실점)으로 앞선다. 한 팀

의 일방적인 승리를 짐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최종 평가전에서 스리백을 실행했던 벤투 감독은 즐겨쓰던 4-2-3-1 포메이션으로 돌아갔다. 황의조(김바 오사카)를 최전방에 두고 황희찬(함부르크),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킬)이 2선에서 지원했다. 좌우 측면 수비수인 김진수와 이용(이상 전북)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 의도대로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은 많았다. 문제는 높은 점유율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이다.

선수들은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어야 한다는 부담에 서로잡힌 탓인지 손발이 맞지 않았다. 어렵지 않은 패스들이 터무니없는 곳으로 향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나왔다.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공격의 흐름이 끊겼다.

간혹 나온 필리핀의 역습은 무척 날카로웠다. 수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개인기를 활용한 공격은 한국을 위협하기에 손색이 없었다. 스테판 슈뢰커와 히비에르 파티뇨를 막는 과정에서 이용(전북)과 정우영(알사드)이 불필요한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다.

승점 3점을 가져오는데 성공했지만 우리로서는 분명 찜찜함이 남는 한 판이었다.

반대로 조별리그 2·3차전에서 만난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에게는 좋은 공부가 됐을 것이다. 남은 기간 한국이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다가올 경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말란 법은 없다.

이날 67분 동안 이어진 골 침묵은 향후 상대가 수세적인 전술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은 대회 특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뉴스스

NC맨 양의지 “변화 위해 선택...우승 목표로 시즌 준비”

“어린 투수들 자기 공 던질 수 있도록 리드하겠다”



김종문 NC 다이노스 단장(사진 왼쪽)과 양의지.

거액을 받고 NC 다이노스에 새 동지를 든 포수 양의지(32)가 우승을 목표로 시즌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양의지는 8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사보이호텔에서 NC 입단식을 가지고 ‘NC맨’으로서 첫 공식 일정에 나섰다.

올 겨울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 양의지는 지난날 11일 NC와 계약기간 4년, 총액 125억원에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2019~2022년 계약금 60억원, 연봉 65억원의 조건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이 대호가 2017년 롯데 자이언츠와 계약할 때 기록한 150억원이 기존 FA 최대 규모 계약이다. 양의지는 지난 시즌을 마친 뒤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와 계약할 때 작성한 포수 최고액(4년 8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양의지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NC를 선택했고, 후회는 없다”며 “우승, 준우승을 여러차례 했다. 야구하면서 이번이 변화의 포인트라고 생각했다. 계속 두산이라는 팀에서 뛠 수 있었지만, 변화를 주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NC라는 팀이 창단부터 어린 선수들이 거침없이 패기있게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나도 여기서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뤄져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새로운 야구장에서 시즌을 보내는 NC는 새 출발을 위해 양의지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양의지는 “광주나 대구에 좋은 구장이 많이 생겼다. 새 팀으로

옮기면서 너무 좋은 구장에 합류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 좋은 시설과 환경에서 야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대 동기였던 NC 사이드암 투수 원종현과 가장 호흡을 맞춰보고 싶었다는 양의지는 “원종현이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야구장에 돌아왔다. 원종현의 공을 꼭 받아보고 싶다”고 전했다.

상대했을 때 가장 묘한 기분이 들 것 같은 두산 투수로 좌완 유희관을 꼽은 양의지는 “(유희관)이 형을 많이 도와줬어야 하는데 못해서 성적이 좋지 못했다. 회관이 형이 항상 고맙다고 말을 잘해준다. 회관이 형을 상대하면 기분이 묘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NC 감독은 양의지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 “어린 투수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의지는 “구장모가 가장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선발 투수로 뛰며 경기 운영하는 것도 많이 늘었다. 장현식도 좋은 구질과 구종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하기 보다 그 선수들이 얼마나 자기 공을 던질 수 있게 만들어주냐가 중요하다. 어린 투수들이 자기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리드하겠다”고 말했다.

양의지는 “두산 베어스에서 우승을 목표로 시즌을 준비했다. NC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팀 우승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며 “목표는 144경기에 동료, 감독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전체 다 웃을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손흥민 몸값 1203억원, 유럽 5대리그 33위 · 아시아 1위

1위 프랑스 파리생제르망 공격수 음비페 2731억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몸값이 다시 1200억원대를 돌파했다. 8일 국제축구연맹(FIFA)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에 따르면 손흥민은 9890만유로(약 1203억원)의 몸값을 기록했다. 지난 8월 9890만유로(약 1269억원)를 기록한 이후 한동안 하락세였지만 다시 1200억원의 벽을 넘었다. 전체 100명 가운데 33위에 해당하는 고액이다. 32위를 기록한 리버풀 센터백 버질 반 다이크(네덜란드)와 34위에 오른 팀 동료인 데리슨 산체스(콜롬비아)와 엇비

슷한 몸값이다. 또 인테르 밀란의 주전 공격수 마우로 이카르디(아르헨티나, 35위)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망주 마커스 래시포드(잉글랜드, 36위)보다도 높다. 아시아 선수 가운데서도 단연 최고다. 총 100명의 선수 가운데 손흥민 이외의 아시아 선수는 한 명도 없다.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이 반영된 몸값이다. 손흥민은 최근 6경기에서 7골 5도움을 올리며 필립 날았다. 12월에는 6골 3도움을 기록,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이달



의 선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1위는 프랑스 리그 파리생제르망(PSG)에서 뛰는 공격수 킬리앙 음비페(프랑스)로 2억1850만유로(약 2731억원)를 기록했다. 2위는 손흥민의 팀 동료인 해리 케인(잉글랜드), 3위는 PSG의 네이마르(브라질)가 차지했다.

뉴스스

전남드래곤즈 공격력 강화위해 측면 공격수 정재희 영입

정재희 “전남 승격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정명)가 측면 공격 보강을 위해 인양으로부터 정재희 선수를 영입했다. 상지대 출신으로 스피드, 드리블, 슈팅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아 2016년 안양FC에 입단한 정재희 선수(174cm, 70kg)는 빠른 발을 이용한 측면 공격과 주전 선수와의 2대1 패스를 통한 돌파와 슈팅 능력이 탁월한 선수이다. 특히 신인선수로서 거의 모든 경

기에 출전하면서 지난 3시즌 동안 101경기에 출장하여 12골 7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정재희가 촉망되는 선수이다. 전남드래곤즈는 정재희 선수의 합류로 측면 돌파를 통한 공격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에 입단한 정재희 선수는 “전남에 온 만큼 전남의 승격을 위해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팬 여러분들께서



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평양=김승호 기자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자연, 갈매마을, 화엄사, 설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전-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단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